

‘최연소 대기록’ 정해영 “KIA는 무서운 팀, 꼭 올라간다”

KBO 리그 최연소 5시즌 연속 10세이브 기록 달성

변우혁, 롯데전 9회말 ‘환상적 수비’로 승리 지켜줘



KIA 타이거즈의 마무리 정해영이 ‘은인’ 변우혁에게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다.

KIA 정해영은 지난 13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시즌 4차전에서 시즌 10번째 세이브를 수확했다.

4-1로 맞선 9회 마운드에 오른 정해영은 연속 안타와 볼넷으로 2사 만루까지 몰렸지만, 레이예스의 안타성 타구를 1루수 변우혁이 잘 잡아주면서 세이브를 기록했다.

그대로 선상을 빠져나갔다면 싸움이 안타가 될 수도 있었던 타구였지만 변우혁의 몸을 날린 수비에 정해영은 시즌 10번째 세이브를 기록했다.

앞선 11일 SSG전에서 130세이브를 채웠던 정해영은 이번에는 5시즌 연속 10세이브 기록을 만들었다.

역대 10번째이자 23세 8개월 20일에 작성한 최연소 5시즌 연속 10세이브 기록이었다. 앞선 기록은 고우석이 LG 시절인 2023년 8월 11일 기록한 25세 5일이다.

“어머니가 우혁이 형에게 밥해주시기로 했다”며 좋은 수비로 세이브를 만들어준 변우혁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정해영은 “빠졌으면 진짜 큰일 났을 것이다. 타구가 워낙 빨라서 빠진 줄 알았다. 그런데 우혁이 형이 슬라이딩했는데 공이 앞에 있었다. 그래서 빨리 베이스 커버에 들어갔다”고 극적이었던 세이브 순간을 이야기했다.

또 “과정은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결과라도 좋게 돼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워낙 형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형들한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며 “형들을 조금 더 편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최연소 기록을 만들었지만 정해영은 개인 기록보

다는 팀이 승리했다는 부분에 의미를 뒀다.

정해영은 “그전에도 130세이브인 줄 몰랐다. 연속 10세이브 기록은 기사 때문에 알게 됐었는데 신경 안 썼다. 세이브 기록보다는 최근 경기에서 장타가 많아서 거기에 빠져있었다”며 “일단은 결과라도 좋게 나와서 다행이다. 결과를 내야 하는 보직이니까 아무리 과정이 좋고 결과가 안 좋으면 안 된다. 과정이 안 좋더라도 결과가 잘 나와서 정말 다행이다. 앞으로는 과정까지 좋게 마무리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팀의 39번째 경기 날 기록된 10세이브. ‘막강 불펜’으로 우승을 이뤘던 ‘다펜딩 챔피언’ KIA는 올 시즌 불펜의 부상과 부진으로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다. 정해영도 불펜 난조로 벌써 3번이나 멀티 이닝을 소화하기도 했다.

정해영은 “확실히 우승팀이라는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다. 시즌 초반에도 1~2경기 지면 우리가 많이 쫓겼던 것 같다. 작년에 우승할 때도 연패했었고 그랬는데 다들 쫓겼다. 중위권에 있지만 아직 경기 100경기 넘게 남았으니까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우리도 분위기 타면 정말 무서운 팀이니까 분위기가 타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멀티이닝은) 내가 잘 이겨내야 하는 부분이다. 작년에 어깨 다치고 나서 후반기에 감독, 코치님이 아예 멀티이닝 안 시키고 배려해 주셨다. 그래서 형들이 더 고생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내가 형들 많이 도와주고 싶고 믿음에 보답하고 싶다. 집중하면서 그냥 던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해영의 식사 초대를 받은 변우혁은 “그것 빠졌으면 나도 죽는 것이었다. 앞에 찬스를 못 살렸다(웃음). 해영이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보였는데 그 전에는 좋았다. 점수 준 것도 아니고 끝났으니 됐다”고 팀 마무리를 응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BO 리그 최연소 5시즌 연속 10세이브를 기록한 KIA 정해영(오른쪽)이 호수비로 10번째 세이브를 만들어준 내야수 변우혁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의리 복귀 임박…불펜 피칭 ‘이상무’

KIA 타이거즈 이의리의 복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두 번째 불펜 피칭을 소화한 이의리가 ‘이상 무’를 외치며 다음 무대를 기다리고 있다.

KIA 이범호 감독은 15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경기에서 앞서 이의리의 불펜 피칭 소식을 전했다.

전날 불펜 피칭에 나선 이의리는 50개의 공을 던지면서 몸상태를 점검했다. 이의리는 가볍게 공을 던지면서도 145~146km를 찍었다. 무엇보다 몸상태가 좋다는 점이 반갑다.

이의리는 15일 “몸상태가 좋다. 캠프 끝나고 나

서 합평에서 라이브 던지고 3주 가장 쉬었다가 불펜 피칭을 했다. 앞선 불펜 피칭에서도 그렇고 다 좋았다. 작구는 물론 변화구도 다 던져봤다”며 “템포에 신경을 썼다. 또 역구가 안 나오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던졌다. 만족스러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이의리는 팔꿈치 내측 인대 재건술과 뺨조각 제거 수술을 받으면서 일찍 시즌을 마감했다.

이의리는 지난 겨울 KIA의 스프링캠프단에 동

행해 미국 어바인과 일본 오키나와에서 불펜피칭 등을 소화하면서 마운드 복귀 준비를 했었다. 그리고 잠시 휴식기를 가진 뒤 2025시즌을 위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통증 없이 좋은 몸상태로 계획대로 재활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초 예상했던 6월 복귀가 가능한 전망이다.

이의리는 한 차례 더 불펜 피칭을 소화한 뒤 합평에서 라이브 피칭을 하면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여울 기자 wool@

이정후, 오라클파크서도 터졌다 ‘시즌 5호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가 1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2025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 8회말 2사 1:2루에서 홈런을 터뜨리고 있다. /연합뉴스

애리조나전 3점포…SF, 10-6 승

‘바람의 손자’ 이정후(26·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홈구장에서 올 시즌 처음으로 홈런 손맛을 봤다.

이정후는 1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에서 팀이 7-4로 앞선 8회말 2사 1:2루에 등장했다.

애리조나 벤치는 2사 2루에서 최근 타격감이 좋은 엘리엇 라모스를 고의 볼넷으로 보내고 이정후와 대결을 택했다.

그러자 이정후는 상대 좌완 불펜 투수 조 맨티플라이의 4구째 몸쪽 낮은 커브를 정확한 타이밍에 잡아당겨 오른쪽 펜스를 넘기는 석 점짜리 홈런으로 상대 벤치의 선택이 오판이었음을 입증했다.

이정후의 시즌 5호 홈런이자, 올 시즌 홈구장 오라클파크에서 터진 첫 홈런이다.

오라클파크는 오른쪽 외야에 높은 담이 있어 좌타자가 홈런을 뽑아내기 어려운 곳이다.

앞서 올 시즌 터진 이정후의 홈런 4개는 모두 방문 경기(양키스스타디움 3개, 리글리필드 1개)에서 나왔다.

이정후의 홈런은 지난 7일 시카고 컵스전 이후 7일 만이다.

또한 이정후가 오라클파크에서 담장을 넘긴 건 지난해 4월 21일 애리조나전 이후 388일 만이다.

이를 연속 4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한 이날 이정후의 타격 성적은 5타수 2안타, 3타점, 1득점이다. 이정후의 멀티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도 지난 7일 컵스전 이후 7일 만이다.

샌프란시스코는 이정후의 홈런으로 멀찌감치 달아나 애리조나에 10-6으로 승리하고 4연패에서 벗어났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3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홍명보호, 9월 미국·멕시코와 A매치

손흥민, 포체티노 감독과 대결

‘홍명보호 캡틴’ 손흥민이 토트넘(잉글랜드)에서 한술밥을 먹었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미국 축구대표팀 감독과 오는 9월 미국에서 ‘사제 대결’을 펼치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14일 “홍명보호(사진) 감독이 지휘하는 축구 대표팀이 오는 9월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무대인 미국 현지에서 미국, 멕시코와 차례로 맞붙는다”며 “먼저 미국과 7일 오전 6시 뉴저지의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스타디움에서 평가전을 치른다. 멕시코와는 현지시간 9일에 두 번째 경기를 치르는 데 아직 장소와 Kick-off 시간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팀이 해외 원정 평가전을 치르는 것은 2023년 9월 영국에서 웨일스, 사우디아라비아와 대결한 이후 2년만”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축구협회도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남자 대표팀이 아시아 강호인 한국, 일본을 상대로 평가전을 치른다”고 발표했다.

미국 대표팀은 ‘홍명보호’와 먼저 맞붙고, 사흘 뒤인 한국시간 10일 오전 8시 30분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의 로위닷컴 필드에서 일본 대표팀을 상대한다.

멕시코축구협회 역시 홈페이지에 9월 한국, 일본과의 평가전 내용을 게재했다.

멕시코는 일본과 현지시간 6일 캘리포니아주 오를랜드 콜리세움에서 먼저 대결한 뒤 한국과 맞붙는다.

홍명보호는 2026 북중미 아시아지역 3차 예선 B조에서 승점 16(4승 4무)을 쌓아 요르단(승점 13)과 이라크(승점 12점) 등을 따돌리고 선두를 달리고 있다.

대표팀은 6월 6일 이라크 바스라에서 예정된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9차전 원정에서 비기지만 해도 최종 10차전 결과에 상관 없이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한다.

대한축구협회 역시 월드컵 본선 진출에 대비해 일찍부터 9월 A매치 평가전 상대를 물색했고, 개최국 자격으로 본선에 자동 출전하는 미국과 멕시코를 상대로 평가전을 펼치게 됐다.

특히 미국 대표팀을 지휘하는 포체티노 감독은



토트넘을 지휘할 당시 2018-2019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하며 ‘홍명보호 캡틴’ 손흥민과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

손흥민은 포체티노 감독이 첼시(잉글랜드) 사령탑을 맡았던 2023-2024시즌 EPL 무대에서 먼저 ‘사제 대결’을 펼쳤고, 포체티노 감독이 지난해 9월 미국 대표팀을 맡은 이후로는 처음 그라운드에서 만나게 됐다.

한국은 미국과 A매치에서 11차례 만나 5승 3무 3패로 앞서 있다.

최근 대결은 11년 전인 2014년 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치른 평가전으로 한국이 0-2로 패했다.

또 멕시코와 역대 A매치 전적은 4승 2무 8패로 열세다.

멕시코와는 2020년 11월 15일 오스트리아에서 마지막으로 만나 2-3으로 패했다.

/연합뉴스